

동아시아 민주 · 평화 · 인권 네트워크 워크숍

2025
9.4. 목
9.5. 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최 주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일정표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9.4. (목) 1일차	13:00~14:00	정읍역 정문 출입구 집결 및 이동	정읍역
	14:00~15:00	개회식 환영사(14:00~14:05) 참여기관 소개 및 참가자 인사(14:05~14:40) 축하공연(14:40~14:50) 5.18기념재단, 국가기념식 관련 제안(14:50~14:55) 일정 소개, 기념사진 촬영(14:55~15:00)	교육관 강당
	15:00~15:10 휴식		
	15:10~16:10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 역사 강연 - 주제: 동학농민혁명에서 응원봉까지 - 강사: 조형근(사회학자, 전 한림대 교수)	
	16:10~16:20 휴식 및 장내 정리		
	16:20~17:00	대표자 회의	기념관 세미나실
		실무자 분과 회의	연수동, 교육관 강당, 중회의실, 녹두마당
	17:00~18:30	기념공원 해설 투어	기념공원
	19:00~21:00 석식(이화담) 경품 이벤트		
	21:30~	숙소 이동, 방 배정	JB전북은행 아우름캠퍼스
9.5. (금) 2일차	8:00~9:00 조식 및 퇴실(JB전북은행 아우름캠퍼스)		
	9:00~11:50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정읍시 관내
	12:00~13:00 중식(백제식당)		
	13:00~14:00	정읍역 또는 재단 이동, 해산	정읍역 또는 재단

차 례

일정표 | 1

환영사 신순철(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3
국가폭력 사건 기록물 및 국가기념식 관련 제안 박강배(5·18기념재단 상임이사)	5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 역사 강연 조형근(사회학자, 전 한림대 교수) 13	
참여기관 소개	22
대표자 회의 안건	45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49

환영사

신순철(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존경하는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 네트워크 소속기관의 임직원 여러분.

‘2025년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 네트워크 워크숍’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노근리국제평화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제주4·3평화재단,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역사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행사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행사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개최됩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사상 아래,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원대한 이상을 역사 속에 새겼습니다. 그 정신은 오늘날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 인권의 확산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가치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비록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일상의 업무 현장을 잠시 떠나 새로운 공간에서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각 기관의 성과와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손을 맞잡고 연대할 때,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는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질 것이며, 그 울림은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축하공연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신 정읍시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워크숍이 여러분께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의 연대와 협력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신 순 철

국가폭력 사건 기록물 및 국가기념식 관련 제안

박강배(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국가폭력 사건 기록물’ 공동 대응 제안

‘00년 이후 시작된 국가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국가와 민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생산된 기록물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 등에 묶여 있거나, 사건별 기관·단체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바,

미진한 진상규명을 계속하거나, 사건을 연구하거나, 이용자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 문제의 중대성과 예산 투입 필요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음.

이에, 국가폭력 관련 기관·단체들이 사건 기록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비 예산 확보, 기록물 관리 및 활용 방안 등을 공동으로 마련 하자는 취지의 제안임.

□ ‘국가폭력 사건 기록물’ 현황

관련 기구	기록물 내용	문제점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주로 70·80년대 인권 침해 사건 등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 사건 직접 관계자가 아니면 열람·취득 등이 어려움.
5·18조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관련 軍자료, 가 피해자 진술조서 등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상 관련 자료	위원회 종료 후 지자체, 재단으로 이관토록 법 개정 추진 중 (해당 상임위 소위 계류 중)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회 회의록,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 수집 자료 등	제주도로 이관 → 제주4·3평화재단이 관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여순사건 軍자료, 피해자 진술조서 등	현재 위원회 운영 중. 법에 별다른 표현 없고, 여순단체도 신경쓰지 못함.

□ 국가폭력 사건 아카이브 운영 현황

기관	운영 개요 및 특징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 아카이브’ 운영, 2011년 시작. · 한국 민주화운동사 - 사건별, 시기별 컬렉션 / 사진·구술 컬렉션, 트랜스크립션 / 사료·멀티미디어 콘텐츠 / 민주화운동 일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제주 4·3 평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4·3 아카이브’ 운영, 2022년 신규 개장 · 4·3기념관 소장자료, 4·3평화재단 생산자료, 4·3수집자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 유네스코 등재 후, 2015년 기록관 개관. · 5·18 사건 기록, 유네스코 등록 기록 등 · 5·18조사위 기록물 이관·활용 문제
5·18기념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기념재단 아카이브’ 운영. 2025년 확대 개장 · 1980년 기자 촬영 사진, 힌즈페터 기록물 등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마아카이브’ 운영. 2019년 구축 · 1979년 사건 관련 문서, 신문, 구술, 시청각 등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아카이브’ 운영. 2022년 구축 ·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 구술, 사진, 미술작품 등
성공회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운영(2000년 개관 → 2003년 재개관) · 민주화운동·노동운동·진보정치 등 기록물
여순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순사건 위원회 활동 중. → 위원회 종료 후 계획 불명확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활동 중이나 순수 민간단체임.

○ 국가폭력 아카이브의 현황과 문제점

- 사건별·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사건의 구조적·통합적 맥락 이해 어려움.
- 기관별 아카이브의 분류체계, 기술상 상이 등으로 상호운용성 부족 → 자료 연계·검색에 구조적 제약 발생
- 기록물 업무 담당 인력, 예산 부족으로 장기·안정적 운영 문제
- 저작권, 민감정보, 피해자 동의 등 문제 미해결로 자료 접근성 및 공유 제한

□ '국가폭력 사건 기록물' 공동 대응(안)

○ 목표 및 방향

- 목표 : '국가폭력 사건 기록물' 공동 대응
- 활동
 - 국가기록원에,
: '국가폭력 사건 기록물' 전담 부서(科 단위) → '국가폭력 사건 기록관' 설치 요구
 - 對 행안부
: '국가폭력 사건 기록물' 관련 예산·사업 중요성 등 공동 대응
 - 각 기관·단체의 기록물 문제점을 이용자 측면에서 개선하기 위해 공동 대응
- 방안 : 관련 기관·단체·학교 등 협의체 구성
 - '국가폭력 네트워크' 워크숍에서 인식공유 : '25. 9.
 - 유관 기관·단체·학교 등 현황 공유 모임 : '25. 12.

국가폭력 희생 사건 기념식 관련 제안

'97년 5·18민주화운동이 법정 기념일이 되어 정부 주관 기념식이 개최된 후 국가 폭력 여러 사건을 점점 국가가 독점하여 애도해 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에 의한 희생'과 '국가를 위한 희생'을 구별하지 않는 '정부 기념식' 혹은 '애도'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폭력 관련 기관·단체들이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의 제안임.

□ 정부 주관 기념식 문제점

○ '국가에 의한 희생'과 '국가를 위한 희생'을 구분하지 않아 문제 발생 중

- 국가보훈부가 주관한 '25년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
 - 소총으로 완전무장 한 군인들이 기념식장 곳곳에 등장
 - 기념식장 주위 야산 저격수 노출 경호
 - 군인처럼 제복 입은 헌화 도우미 등장
 - 묵념곡('죽은 군인을 위한 노래'에서 기원 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곡, 김희조 작곡)에 맞춰 희생자에게 묵념을 함.
- 45년 전, 계엄군에 학살당한 사람들과 살아남았으나 삶은 파괴되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기념식이고, 12.3. 내란 후 열린 기념식이니,
 - 희생자들의 뜻을 기리고 유가족과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의식을 행해야 함에도,
 - 국립 현충원에서 매년 6월 6일 개최되는 희생자가 군인인 현충일 기념식과 같은 군인을 위한, 군인에 의한, 군인 식 기념을 함.
- 이에, '1980년 5월 이후 가장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국일보가 보도
 - 이는 정부가 기념식을 준비할 때,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가해자가 누구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않아서 발생한 반인륜적인 처사
- 이에 대해 5·18 제 단체가 기념식 주관처인 국가보훈부에 항의한바,
 - "'정부 의전 편람에 명시된 묵념 곡이며, 모든 정부 기념식에서 국민의례 중 '묵념' 시 사용하는 곡이다. 주요 인사를 경호하기 위해 예년 수준으로 경호했다."라고 해명

□ ‘국가에 의한 희생’ 기념 의례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안)

○ 목표 및 방향

- 목표 : ‘국가에 의한 희생’과 ‘국가를 위한 희생’을 구분하여 기념하는 법적·문화적 환경 조성
- 활동
 -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 : 시기 - ‘25. 10. 30.
 - : 주제 - 국가기념식 성찰과 재구성(가제)
 - : 주최 - 국가폭력 사건 기관·단체
 - : 취지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국가에 의한 희생’을 구별하지 않는 정부 주관 기념식이 국가폭력 희생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가해가 되고 있음.
보훈처가 ‘09년부터 ‘16년까지 5·18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을 만들어 희생자들을 옥보였는바,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임. 이에, ‘국가에 의한 희생’ 기념 의례에 대한 성찰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코자 함.
 - 「국가보훈 기본법」 「국민의례 규정」 「정부 의전 편람」 등 관련 법과 규정 등 검토
 - ‘국가에 의한 희생’ 기념 의례 제정
- 방안 : 관련 기관·단체·전문가 등으로 협의체 구성
 - 심포지움 개최 : ‘25. 10.
 - 법과 규정 개정 등 활동 : ‘26.

붙임 :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장에 나타난 무장 군인 사진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 역사 강연

동학에서 응원봉까지

조형근(사회학자, 전 한림대 교수)

2025년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 워크숍 강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5.09.04)

동학혁명에서 응원봉시위까지 - 민중, 소수자, 그리고 미래



조형근 (동네 사회학자)

동네 사회학자로 살아가기

오피니언

대학을 떠나며



세상 일기

11월부터 휴직자가 됐다. 1년 넘게 팀장직 교수 노릇을 그만두었다. 대입 재학생이었던 10년 30년 후의 내가 대학 생활을 하다가 이제 수혜자였다. 민청학련 끝난 지도 10년이와 정말 비슷하게 느껴진다. 특히 대입은 없었지만, 다시 대학에 재입학하는 느낌은 같았다. 시작 10년 후 정말 좋은 학문의 여백이 있었지만, 이런 시대에 청년보장과 사회안전망을 하더라도 배수가 된다. 나에게는 큰 일이었다. 가까운 마을만 남았다. 뒤늦게 떠나야 했다.

대학 10년 후 정말 좋은 학문의 여백이 있었지만, 이런 시대에 청년보장과 사회안전망을 하더라도 배수가 된다. 나에게는 큰 일이었다. 가까운 마을만 남았다. 뒤늦게 떠나야 했다.

대학 10년 후 정말 좋은 학문의 여백이 있었지만, 이런 시대에 청년보장과 사회안전망을 하더라도 배수가 된다. 나에게는 큰 일이었다. 가까운 마을만 남았다. 뒤늦게 떠나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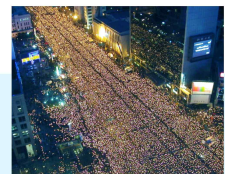
동네잡지
 디어교하 2024년 여름호

한겨레신문 2019.11.10

오늘의 생각거리

- ◆ 동학에서 응원봉 시위까지를 관통하는 주제가 가능할까?
지배권력에 맞서는 대중적 저항, 투쟁
- ◆ 사람들은 어떻게 지배권력에 맞서 저항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지식인, 엘리트에 의한 계몽 vs 지배에 포섭되지 않는 민중의 자율성, 아니면 또다른 무엇?
- ◆ 민중이라는 말은 아직도 유효할까?

동학에서 응원봉까지



민중은 어떤 존재일까?

- ◆ 2016년 교육부 고위 공무원의 폭탄 발언 사건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민중은 개돼지다”
언론 보도로 파문이 일자 파면. 이후 파면은 과한 징계라는 판결을 받고 복직 후 강등 처분
- ◆ 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민중을 비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음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민중을 향한 ‘어리석은 민중’이라는 비난
- ◆ 실제의 민중은 그리 아름답지 않다. 종종 모순적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민중의 양면성
투쟁하던 민중이 어느새 다시 순응하는 민중으로

투쟁의 주체가 되는 경로 1 - 선각과 계몽

경성의전에서 여섯 학기 짤 때 보내던 1919년의 어느 날이었다. 친한 동기생 유상규가 다음 날 저녁 식당 ‘남운’으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가보니 10여 명의 학생이 모여 있었다. 상규는 준비 중인 시위에 대해 말해주면서 “다만 관립학교의 학생들만 시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람들이 의전 학생들을 ‘절반짜리 왜놈’이라며 믿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모두 긴장하며 그에게 귀 기울였다. 시위 동참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첫 번째 시위가 3월 1일, 오후 두 시,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비밀 교서를 전달해 주었다.”

마침내 3월 1일, 군중이 운집한 파고다 공원에서 이미릭은 독립선언서 낭독을 들은 다음 누군가에게서 뼈라 한 뭉치를 받았다. “뿌리시오!” 사람들이 뼈라를 가져갔다. “그럼 당연하지!” 몇몇 사람들이 외쳤다. “그래, 우리 학생들이고, 우리 아이들이야!” 또 다른 사람들이 외쳤다. 여인들이 울부짖고, 몸서리를 쳤다. 그녀들이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건넸다. 목이 터져라 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는 전국으로 번졌다. 경찰이 사람들을 밤낮으로 고문했고, 도처에서 사람들이 죽어갔다. 서울의 학생들은 네 번째 독립 시위를 벌인 후 공식 활동에서 물러나 비밀활동에 들어갔다. 이미릭도 선전문 작업 작업에 투입됐다.

이미릭, <압록강은 흐른다(Der Yalu fließt)>의 내용을 재구성



이미릭(1899-1950)

본명 이의경. 경성의전 재학 중 삼일운동 참가로 수배 후 중국, 독일 망명. 동물학 박사학위 취득 후 문필가로서 생활. 자전적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로 널리 알려짐

투쟁의 주체가 되는 경로 2 - 선동과 부화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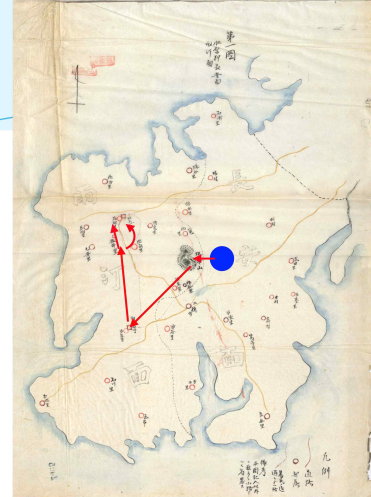
1919년 3.1운동 중 4월 3일의 수원군 장안면, 우정면의 만세시위 사례. 면사무소와 주재소 공격, 일본인 순사 살해. 시위대는 장안면 사무소를 공격한 후 쌍봉산에 올라 만세를 부르며 세를 과시. 산에서 내려와 우정면사무소를 공격. 한각리 광장 인근에서 두 대열로 나뉘어 오후 5시경 화수리주재소를 포위 공격. 장안면 사무소 앞에서는 200명이던 시위대가 산에서 1,000명, 주재소에서 2,000명으로 늘었다. 일본 군경은 64개 마을에서 803인을 검거, 276호를 불태웠으며, 10인을 죽이고 19인을 다치게 함. 특히 장안면, 우정면 시위는 보안법 위반, 소요 및 살인죄가 아니라 내란죄로 다뤘다.

시위 참가 주체와 경로는 1) 종교 조직, 2) 구장 조직에 더해 3) '씨종' 등 농촌 기능민 + 외지 출신 개간 노동자 등 기존 지역 질서에서 배제된 이들이 합세했다.

“왜 시위에 참가했는가?” “참가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아서...”

“아무리 제지해도 많은 인민을 이끌 수 없었다. 우리들이 하는 말은 듣지 않았다.”

일경이 이런 대중 행동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쓴 단어가 바로 ‘선동’과 ‘부화뇌동’
정병욱, <낯선 삼일운동> 중에서



경성지방법원 예심판사 니시야마 규지로가 1919년 7월 2-6일 행한 현장검증 조사 첨부 도면

계몽으로 각성된 민중 대 선동에 부화뇌동한 군중이라는 이분법

- ◆ 교육받은 지식인 엘리트가 먼저 깨닫고(선각), 이를 전달하여 민중을 지배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시키고(계몽), 각성한 민중이 일어나 대중투쟁으로 이어진다(주체화)는 모델

민중은 엘리트가 상정한 '역사발전의 합법칙적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투쟁에 나서게 됨으로써 비로소 역사의 주체가 되는 존재일까? 그렇지 않은 채로도 주체일 수는 없을까?

- ◆ 선동된 민중 = 군중을 주체라고 볼 수 있을까? 군중은 번덕과 열광, 분노가 특징. 무리지어 다니며 질서를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 이성적이지도 않고 진보적일 가능성도 없다(르 봉).

“군중은 진실을 갈망한 적이 없다. 구미에 맞지 않으면 증거를 외면해 버리고 자신을 부추겨 주면 오류라도 신처럼 받드는 것이 군중이다. 그들에게 환상을 주면 누구든 지배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 이들의 환상을 깨버리려 들면 희생의 제물이 된다.”

구스타브 르 봉, <군중심리>

계몽되기 전, 선동되기 전에 존재하는 민중의 자율세계가 있지 않을까?

◆ 지배의 구조와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민중의 자율세계가 존재하고 지속한다!

서민, 상인, 광대 등이 어울리던 장터 문화, 농악 등 평등주의적인 평민 문화의 지속

<봉산탈춤> 6과장에서 양반은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무능하고 허영심만 가득한 존재로 묘사. 하인인 말뚝이가 양반을 능청스럽게 조롱하고, 양반의 언행을 따라하면서 그들의 허위와 무능을 폭로

동학의 인내천(人乃天), 사인여천(事人如天), 시천주(侍天主)와 같이 평등주의 사상을 담지한 민중종교의 부상

미하일 바흐친, 중세 신분사회의 질서를 뒤집는 민중의 제2의 세계로서의 카니발

카를로 긴즈부르크, 그리스도교가 지배하던 중세에도 고대 이래 민중의 자율적인 신앙과 문화가 수백년간 의연히 전승

민중의 자율세계가 정말 존재할까?

◆ 지배체제 외부에서 민중의 자율세계가 장기간 존재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만약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면 실제로는 자율적인 세계가 아니라 지배권력이 허용한 '의례화된 반란'의 공간일 수도. 반란의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순치하기 위해 체제가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수도

지배체제, 지배의 구조로부터 벗어난 존재로서의 민중이 실체화, 특권화된다는 문제
민중이 어떤 역사적 계기나 투쟁을 통해서 생성되는 구체적, 역동적 주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배로부터 벗어나 있는 추상적, 특권적 주체로 가정된다는 문제

민중, 지배체제가 허용한 것들을 변형하는 존재?

- ◆ 민중은 지배체제가 허용한 것들을 이것저것 끌어모아 나름대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존재. 그런데 지배체제가 허용한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민중의 염원이 투영된 것들

4.19혁명 때 시위 노래 문화가 최초로 확산. '해방가', '광복의 노래'도 불렀지만,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는 '전우가', '6.25의 노래' -> 입에 익고 쉬운 노래.

타도 대상이던 이승만정권이 만들고 보급한 노래로 정권 타도 투쟁

광주민중항쟁에서 총을 쏜 민중은 자신들이 빨갱이로 몰릴까봐 두려워했고, 북한의 간첩 침투를 막겠다며 선제적으로 도청에 조사과를 설치. 대형 태극기와 애국가 제창. 투쟁의 정당성을 지배자의 반공이데올로기에서 찾음

4·19에서도, 5·18에서도 민중의 투쟁은 지배이데올로기 바깥에서라기보다는 바로 그 안에서 연원. 그들이 부른 군가, 간첩에 대한 공포는 '왜곡'된 것이라기보다는 평화와 자유에 대한 민중의 염원이 지배체제에 투사된 결과로 볼 수도

민중, 이것저것 끌어모아 사건을 만드는 존재

- ◆ 민중은 “이것저것 잡동사니를 주워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 브리콜뢰르(bricoleur) <야생의 사고>

엔지니어는 먼저 목적을 갖고 수단을 만들어내지만, 브리콜뢰르는 주어진 한정된 자원 안에서 이것저것 모아낸다. 엔지니어는 주어진 목적에 맞게 결과물을 생산해내지만, 브리콜뢰르는 이것저것 만들다가 무언가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것(사건)을 창조해낸다.

역사의 변혁은 역사의 발전 경로를 인식한 엘리트-전위의 지도 아래 민중이 각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변에서 이것저것 끌어모아 자기 염원을 투영하여 지배의 구조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사건을 창조하는 민중을 통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촛불집회 - 응원봉집회, 이것저것 모으다



이화로

촛불집회 - 응원봉집회, 이것저것 모으고 이리저리 모인 평등의 광장

- ◆ 유연자발집단. 조직적으로 동원된 대중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형성된 느슨한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대중
- ◆ 투쟁의 문화화, 축제화 - 운동가요(투쟁가)와 k-pop 아이돌 가요의 결합
- ◆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자의 대대적 참여, 동등한 발언권, 평등한 광장
- ◆ 탄핵 등 당장의 정치적 요구를 넘어 자기 삶의 요구에 기반한 사회대개혁의 요구

민중과 소수자? 민중에서 소수자로?

- ◆ 단결한 동질적 민중이라는 이미지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질적인 사람들의 대두
- ◆ 새로운 흐름에서 강조되는 것은 다양한 정체성들이 지닌 차이에 대한 '인정'. 차이를 부인하고 차별을 행사하는 권력에 맞서는 것이 중요
- ◆ 권력에 맞서는 소수자들 사이의 연대가 과제
- ◆ 교차하는 소수자성, 자기 안의 소수자성 인식
- ◆ 계급적 불평등 극복과 차별 철폐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숙제

고맙습니다

참여기관 소개

5·18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주4·3평화재단 노근리국제평화재단



5·18기념재단

The May 18 Foundation

소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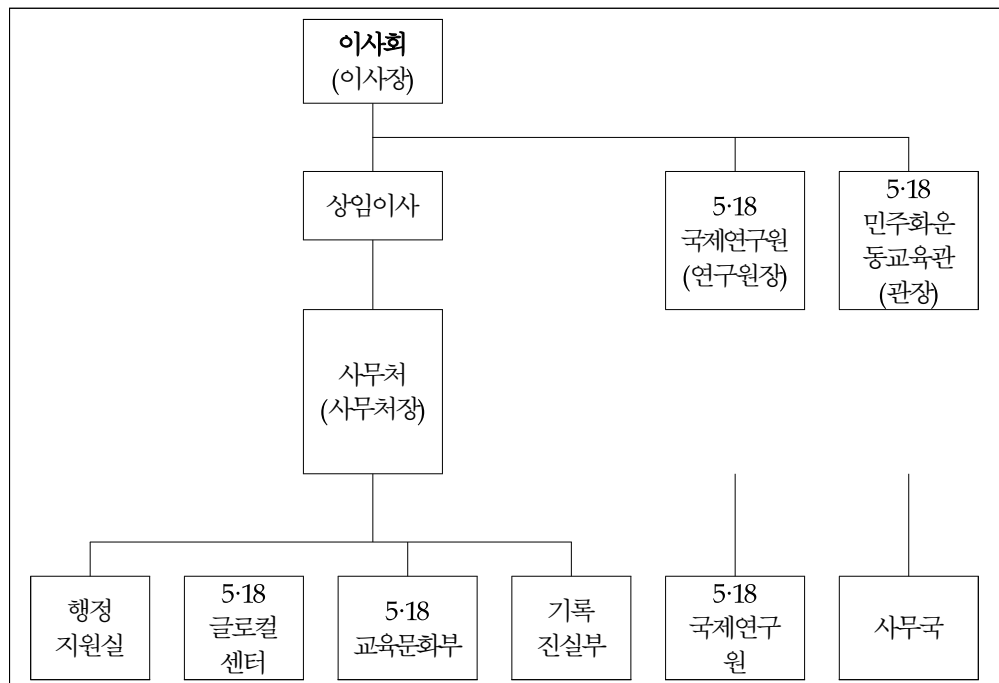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8월 30일, 뜻을 같이하는 광주시민, 해외동포를 포함한 온 국민의 기금과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금 출연 등 소중한 정성이 모여 설립되었다.

설립이념

5·18기념재단 창립선언문에서 ‘5월은 광주의 것도 구속자, 부상자, 유가족의 것도 아니고 조국의 것이고 전체 시민과 민족의 것’이라고 선언한 후, 설립취지서에서 ‘1980년 5월의 민주정신과 자세로 돌아가자, 5월의 민주정신 계승 사업을 위해 보상금 중 일부를 기금으로 마련하여 5·18기념재단을 설립하자’라고 다짐하였다. 이러한 설립정신은 5·18기념재단을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손해배상, 정신 계승 현장에 있도록 하였다.

조직: 1사무처, 4부, 1연구원, 1교육관

현황보고



□ 2025년 사업 내용

1)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 2025년에 지역사회와 함께 설명회, 심포지엄, 서명운동 등 헌법 전문 수록 활동 추진

2) 진상규명 활동 지속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개정, (가칭)「5·18기념사업기본법」 제정, 국가 보고서 검증, 조사위 종합 권고사항 이행 여부 모니터링, 미해결 과제 계속 조사, 『5·18 50년사』 편찬 등 시행

3) 역사공간 활성화와 인권 교육 벨트 조성

- 2025년부터 5·18기념재단이 5·18교육관을 운영함에 따라 자유공원, 교육관 일대를 인권 교육 현장으로 만들고, 법정·영창·505보안대 등 구금시설을 문화예술적으로 운영 및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 추진

4) 5·18민주화운동 45주년 준비

-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여 45주년에 광주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광주시 등과 함께 방문객 원스톱 안내 서비스(온오프라인), 금남로에서 주먹밥 나눔 행사 개최, 방문객을 위한 숙박 시설 등 제공

5) 기존 사업 재구조화

- 광주인권상 등 각종 시상 후 수상자와 수상 작품을 활용한 5·18정신계승 활동 강화하고 전시점에 비효율적인 사업을 재구조화

6) 5·18정신 계승을 위한 비경험 세대 등장 준비, 민주유공자 품위와 존엄성 유지

-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18비경험 세대에게 5·18정신계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바, 광주공동체 대전환 토론회 개최, 비경험 세대 5·18관련 교육 강화 등의 사업 추진

□ 2025년 하반기 주요 사업 일정표

월별	시기 및 장소	사업·행사명
9월	9. 6.~7. 서울	민주역사교육활동가 2차(서울) 연수
	9. 10.~11.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5·18유관기관 임직원 합동 직무교육
	9. 18.~19. 5·18기념문화센터	<공동학술대회-튀빙겐대학교> 트랜스내셔널 광주Ⅲ-5·18과 한인디아스포라(가제)
	9. 19. 13:00~18:30 조선대 법사회과학대학 공용세미나실	<공동학술대회-조선대민주평화연구원> 5·18과 극우정치: 진실 외곡 및 가짜 훼손의 역사와 대항담론
	2025. 9. 26. 조선대	2025 5·18문학상 본상 수상자(한정현) 북토크
	9. 27.~28. 대구	민주역사교육활동가 3차(대구) 연수
10월	10. 18.~19.(예정)	전국역사교사모임 5·18연수
	10. 30. 14:00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희생에 대한 국가기념식의 성찰과 재구성> 심포지엄
	10. 30.~11. 1.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5·18국제포럼 민주주의의 위기와 이행기 정의
11월	11. 1, 15:00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윤이상추모음악회 통영국제음악당 등
	11. 5. 18:00, 서울(미정)	제5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시상식
	11. 9, 15:00,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윤이상국제콩쿠르 수상자 앵콜 공연(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소 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기념재단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 정기를 북돋우며,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2022년 5월 11일 개원한 동학농민혁명 대표 복합 역사문화 교육체험 공간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황토현전적 일원)을 운영하고 있다.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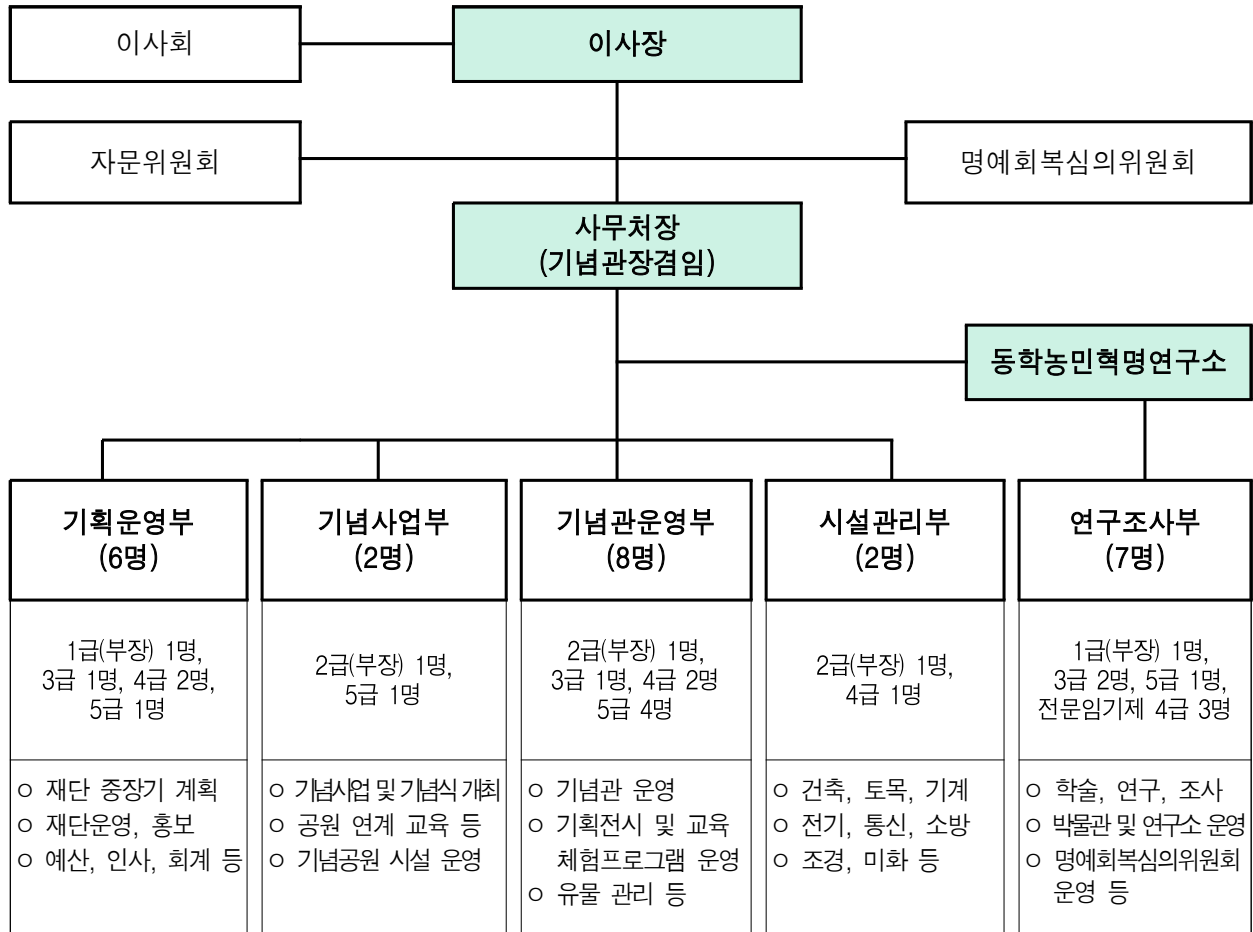
- (목적)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족의 대화합과 통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
- (임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
- (법적근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제9조 :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설립한다.

주요 연혁

- 2004. 3. 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04. 9.17.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출범(위원장: 국무총리)
- 2010. 2.24.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인가(문화체육관광부)
- 2010. 4.19. 재단 1기 이사회 출범(이사장 김영석, 임기 3년)
- 2010. 9. 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읍 이전
- 2011. 1. 1.~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수탁 운영
- 2013. 4.19. 재단 2기 이사회 출범(이사장 김대곤, 임기 3년)
- 2016. 4.19. 재단 3기 이사회 출범(이사장 이승우, 임기 3년)
- 2018. 9.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재출범(사무처리 업무수탁)
- 2019. 2.26.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5월 11일/황토현전승일)
- 2019. 4.24. 재단 4기 이사회 출범(이사장 이형규, 임기 3년)
- 2022. 4.24. 재단 5기 이사회 출범(이사장 신순철, 임기 3년)
- 2022. 5.11.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
- 2023. 4. 1.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설립(초대 연구소장 신영우)
- 2023. 5.24.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2024. 5.11.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개최
- 2025. 5.27. 재단 6기 이사회 출범(이사장 신순철/연임, 임기 3년)

조직 및 정·현원

○ 조직도



○ 정 · 현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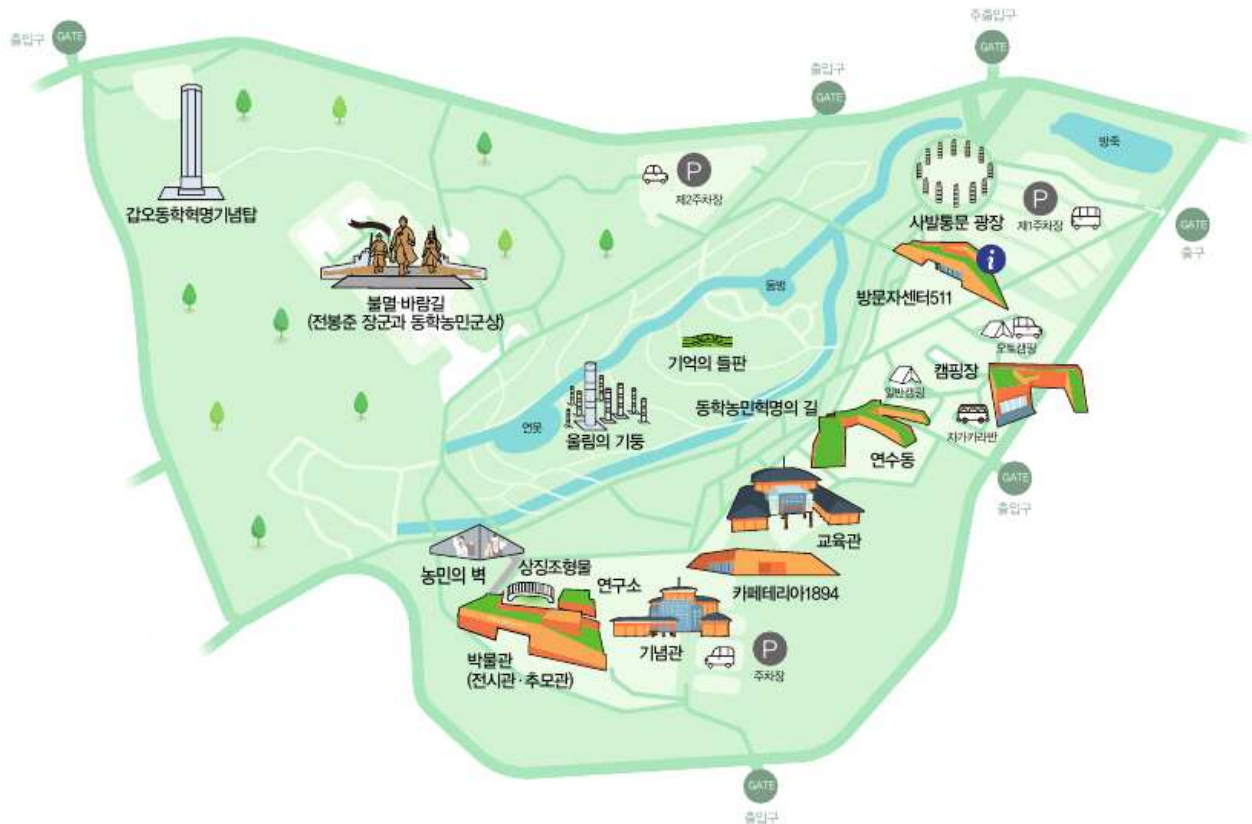
구 분	사무처장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합 계
정 원*	1	2	3	5	8	6	25
현 원**	1	2	3	4	9	7	26

* 별도정원 : 10명(기념관 운영 8명, 명예회복심의위원회 2명) ** 정원외 : 1명(명예회복심의위원회)

※ 기간제 : 14명(국비-13명/재단 및 공원 운영, 도비-1명/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주요 시설 현황

○ 기념공원 배치도



○ 주요 시설

시설명		면적(㎡)	주요내용
박물관	전시관	1,209.16	동학농민혁명 상설전시 공간
	추모관	225.8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추모 공간
기념관		3,816.56	기획전시실, 자료실, 세미나실, 사무 공간 등
교육관		1,543.76	대강당, 중회의실, 강의실 등
연구소		225.92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연수동		885.12	객실(2인실-5개, 4인실-8개), 교육실, 식당
방문자센터 511		192.04	안내데스크, 물품보관소 등
카페 1894		137.25	커피, 음료 다과 등 판매시설
녹두장군 캠핑장		8,757.00	일반 29면, 오토 22면 (200여 명 수용)

※ 공원부지 면적 : 301,329.10㎡

2025년 하반기 주요 사업 일정표

월별	시기	사업/행사명
9월	9/1~9/14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순회전시2(광주)
	9/16~9/27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순회전시3(순천)
	9/16	영호도회소 기념사업회 연계 학술대회
	9/23	기념관 2025년 2차 특별전시 개막 전시명 : 대둔산-최후 전쟁에서 전봉준의 부활로 전시기간 : 2025. 9. 23. ~ 2026. 2. 22.
	9/24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현장평가
	9/2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9/30	고창군 연계 학술대회
	9월 중	(정읍시 연계) 기념공원 시 오수관로 연결공사
		동학농민혁명 지역단체 기념사업 공모사업 추가 선정
10월	10/1~10/12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순회전시4(남원)
	10/3~10/9	한가위 민속놀이 한마당
		캠핑장과 함께 하는 한가위
	10/23	황토현 유적정비 학술대회
	10/30	태안군 연계 학술대회
	10월 중	(정읍시 연계) 기념공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26년 준공)
11월	11/6	김제시 연계 학술대회
	11/20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11/30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5호 발간
12월	12/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12월 중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대행사 선정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BUMA DEMOCRATIC UPRISING MEMORIAL FOUNDATION

소 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유신독재의 붕괴를 아래로부터 촉발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결정적 사건인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8년 설립되었다.

우리 재단은 엄혹한 유신독재하에서도 자유와 평화를 위해 떨쳐 일어난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설립이념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유신독재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2025년 하반기 주요 사업 일정표

시기	사업/행사명	내용
연중	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 연중 수시 진행 ○ 대상 : 전국 어린이, 청소년, 시민, 교사 등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마길 현장탐방(부산길, 마산길) - 국내 민주화운동 역사 현장 연계 탐방 - 찾아가는 부마길 현장탐방 - 부마길 해설사/전문인력 대상 프로그램 진행 - 초/중·고등용 교재 보급(각 2,000부) - 부마민주항쟁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수 ○ 일정 : 2025.4. ~ 12. ○ 대상 : 경상남도 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주요 역사현장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원 민주주의 역사현장 탐방 ▷ 민주·인권·평화 탐방 : 경남 진주, 거제, 광주, 전북 정읍
3/4분기	부마문화제 (청년 렉처 콘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 2025.9.20.(토) ○ 장소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연) 청년층 대상 부마의 가치 소개 - (공연) 지역 청년 음악가 퍼포먼스

시기	사업/행사명	내용
4/4 분기	아카이브 순회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 2025. 10. 21. ~ 11. 14. ○ 장소 : 부산근현대역사관 ○ 주최 : 부마재단, 부산근현대역사관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마민주항쟁 연작 전시 - 부마항쟁 아카이브 자료 전시 등
	민주·인권·평화 퀴즈 골든벨 (경남 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 2025. 11. ○ 장소 : 창원 일원 ○ 주최 : 부마재단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인권·평화 사례에 관한 문제은행 구축 - 서바이벌 퀴즈 이벤트 진행
	부마민주항쟁 기념 걷기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 2025. 10. 25.(토) ○ 장소 : 부산대학교 일원 ○ 주최 : 부마재단, 부산대학교, 국제신문 ○ 후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대 ↔ 온천천(도보 4km) 부마항쟁의 길 걷기 - 축하공연 및 경품 추첨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 2025. 10. 16.(목) ○ 장소 : 3·15아트센터(경남 창원)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 학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 2025. 10. 30.(목) ○ 장소 : 부산대학교 10·16기념관 ○ 주제 :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령, 민주화운동(가제)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발표 및 토론
	부마항쟁 문학상 (제6회 부마항쟁 문학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 2025.10.18. (예정) ○ 주최 : 부마재단, 국제신문 ○ 후원 : 부산광역시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마항쟁 및 민주·인권·평화의 가치와 정신을 담은 시·시조, 소설, 아동·청소년문학, 기록문학 등에 대한 공모 - 부문별 심사 및 시상
	관련단체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 2025. 5. ~10.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를 통한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 지원



사단
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소 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중항쟁, 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져 온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을 평가 정리하고 그 정신을 계승 기념하는 단체이다. 1989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로 창립하였으며 1994년 사단법인 등록, 1997년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로 개칭하였다.

설립이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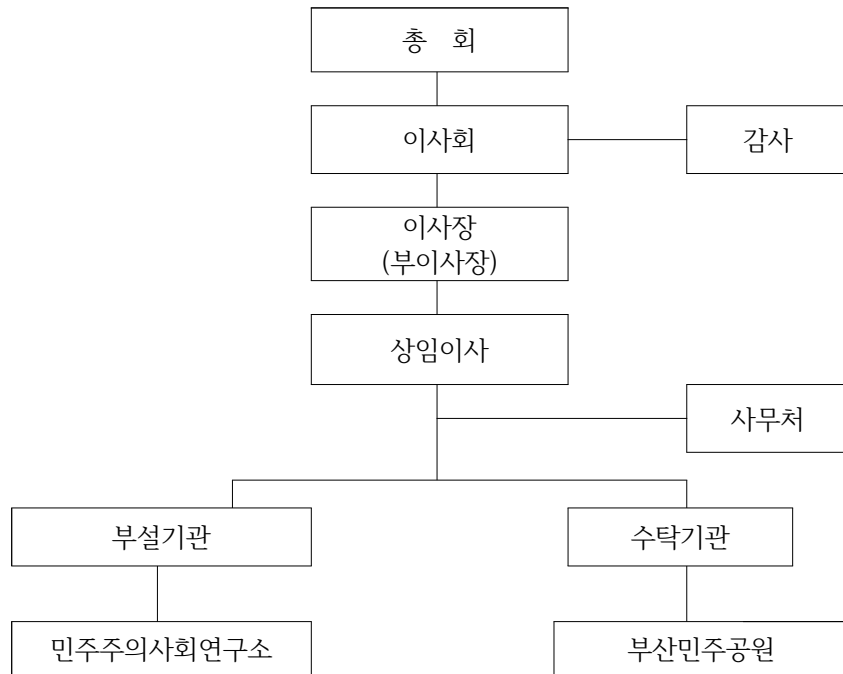
- 민주주의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이 시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워나간다.
- 부산지역의 민주화 운동 역사를 현재화시키고, 대중화하는 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지역발전과 건강한 문화 창달의 대안을 제시한다.
- 국내외의 정세변화 흐름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함께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에 대한 전망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모색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항상 새롭게 실천하는 사회운동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돈독한 지역 연대의 장을 마련하는 주체가 된다.

1.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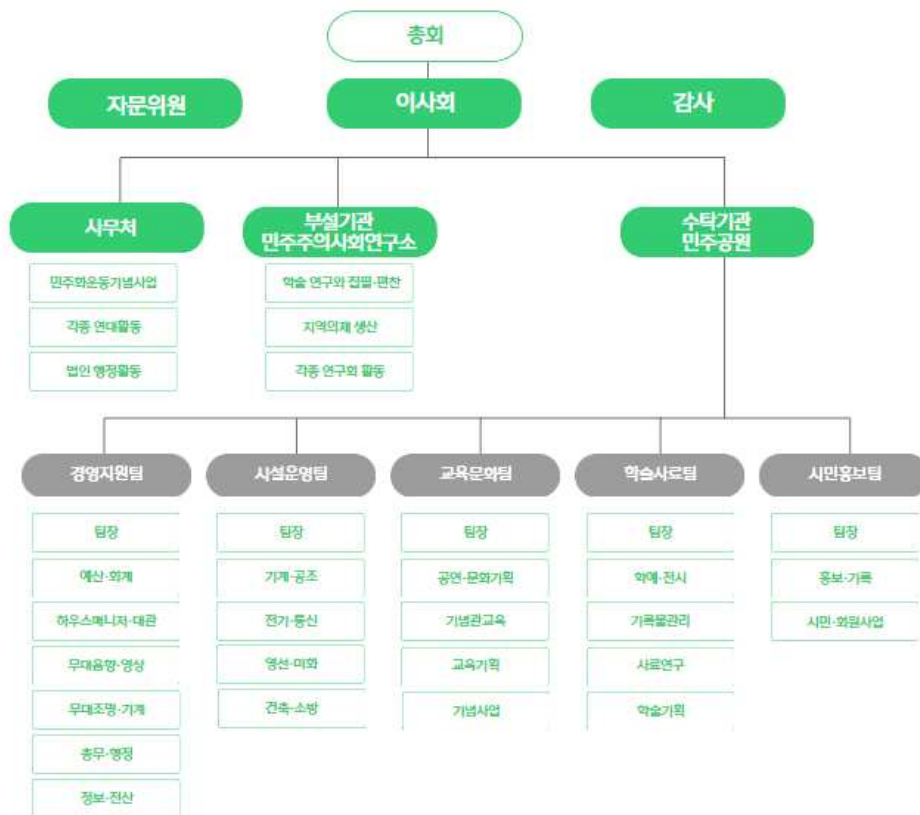
1989. 8. 28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창립 (초대 이사장 송기인)
1994. 4. 28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록 (공보처 등록)
1994. 10. 7	특별위원회 “부산지역 6월항쟁 자료발간위원회” 설치
1997. 1. 24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로 명칭 개칭
1999. 10. 16	민주공원 개관
2000. 1. 1	민주공원 수탁 운영
2000. 4. 15	사단법인 등록사항 변경 (행정자치부 제 2000-4호)
2000. 7. 12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설립
2000. 10. 6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 지정 (재정경제부 공고 제 2000-132호)
2002. 5. 16	민주공원 수탁 관리.운영 (부산광역시)
2006. 1. 1	2대 이규정 이사장 취임
2007. 7. 1	4월민주혁명희생자위령탑 및 영령봉안소 재수탁 관리.운영
2010. 2. 24	3대 김재규 이사장 취임
2010. 3. 31	부설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설립
2012. 1. 1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수탁 관리.운영 (부산광역시 중구청, ~2020.)
2014. 2. 20	4대 문정수 이사장 취임
2022. 2. 17	5대 이행봉 이사장 취임
2022. 12.	민주공원 부속건물(기록관) 공사 착공
2023. 2. 16	부설기관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독립법인 추진계획 승인
2024. 12.	민주공원 부속건물(기록관) 준공
2025. 2.	민주공원 부속건물 명칭 시민공모 추진 ‘민주주의 기록관’ 선정

2. 조직 개관

○ 조직도



○ 업무



- 회원 : 2,681명[회원 : 286명(임원 포함), 후원회원 2,395명]
- 임원 : 78명(이사 31명, 감사 2명, 추천이사 45명)
 - 이 사 장 : 이 행 봉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 부 이 사 장 : 이 희 길 (전 부산MBC사장)
 - 명예이사장 : 송 기 인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문 정 수 (전 부산광역시장)
 - 상 임 이 사 : 이 동 일 (민주공원 관장)

3. 상설 연대조직

□ 부산

부산자주평화통일연대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원도심문화네트워크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부산행동

□ 전국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
 민주연구단체협의회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전국협의회

4. 2025년 하반기 주요 사업 일정

월별	기간/일정	사업/행사명
9월	9/13	민주공원 기획공연 <숙희책방>
10월	10/16	민주주의기록관 개관식
	10/16 시상 (6월~8월 추천, 8월~9월 심사)	민주시민상 시상식
11월	11월	민주공원 생활예술축전
	11월 말 ~ 12월 초	전체 평가워크숍
12월	12월 초	민주부산의 날



민주화운동기념관

소 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일상 속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전시와 교육의 공간인 민주화운동기념관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립목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 국회에서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2007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국가기념일인 6·10민주항쟁 기념식 개최를 포함하여 민주화운동기념관 및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운영, 민주화운동 기념·교류 사업, 민주주의 교육, 사료수집 및 관리, 학술연구, 국제협력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 2025년 하반기 주요 사업 일정표

월별	날짜	사업명/주관부서
9월	9.2.(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MOU 체결 [전시운영팀]
	9.8.(월)	한독 주니어 포럼 [국제협력팀]
	9.8.(월)	민주주의 포스터 전시 연계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전시운영팀]
	9.11.(목)~11.20.(목)	시민강좌 남영야학 [교육운영팀]
	9.13.(토)	1+7 민주주의 토크 콘서트 [교육운영팀]
	9.16.(화)~10.13.(월)	기념관 해설사 양성과정 [교육운영팀]
	9.18.(목)~2026.3.1.(일)	대만국립인권박물관 국제 교류전 [전시운영팀]
	9.29.(월)	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 국제콘서트 [국제협력팀]
	9.30.(화)	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 국제 심포지엄 [국제협력팀]
	9월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발대식 [기념사업팀]
10월	9~11월	기념관 시민참여 문화사업 (영화제, 음악회 등) [기념사업팀]
	10월	민연협 학술 콜로키움 [사료연구팀]
11월	10.14.(화)	민주인사의 밤 [국제협력팀]
	11.1.(토)	제1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본선 [교육운영팀]
	11.9.(일)	민주 마라톤 [기념사업팀]
	11월	기억과 전망 53호 발간 [사료연구팀]
12월	11월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발표회 [기념사업팀]
	12.19.(금)	<민주화운동사전> 편찬 학술 콜로키움 [사료연구팀]
	12월	대공분실 낭독극장 [전시운영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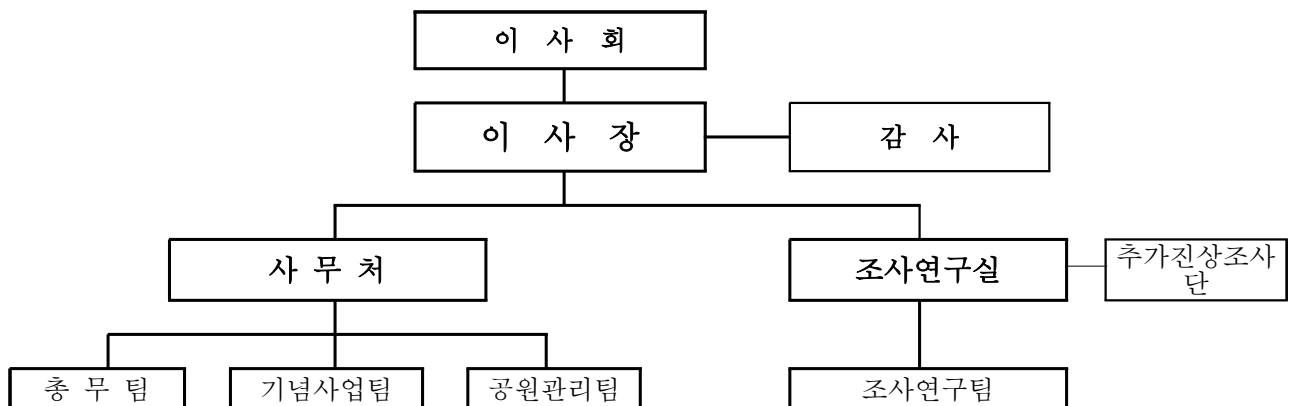
소 개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08년 10월 16일 설립된 공익적 목적의 법인이다.
우리 재단은 지금도 미결의 장으로 남아있는 4·3해결의 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설립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 재단은 설립 취지에 따라 세계적인 평화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과 법적으로 부여된 목적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자 한다.

설립개요

- (설립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설립목적) 제주4·3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인류평화의 증진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출범일시) 2008. 11. 16.

□ 기 구



□ 정원 및 현원

○ (정원/현원) 34명/33명 (단위: 명)

구분	계	이사장	일반직							연구직						공무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정원	34	1	17	1	3	3	3	5	2	6	1	1	1	2	1	10
현원	33	1	16	(1) *	2	3	3	4	3	6	1	1	1	2	—	10

* 일반직 1급(1명)은 도 파견 공무원

□ 팀별 사무분장

구 분		사무분장	비 고
사무처	총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운영, 예산·회계, 인사, 복무, 기금운용, 경영평가 등 재단 운영 총괄 ○ 4·3생존희생자, 유족 진료비 지원 등 복지사업 ○ 4·3희생자 후손에 대한 장학사업 ○ 뮤지엄샵 운영 등 	
	기념사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족 복지 및 추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어버이상, 4·3전야제 등 ○ (4·3문화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평화문학상, 4·3영화제, 4·3언론상 - 4·3학생문예대회, 대학생 4·3평화대행진, 동백서포터즈 운영, 국내·외대학생 4·3평화캠프 - 전국공무원 4·3교육, 전국교원 4·3직무연수, 4·3아카데미, 서울지역 4·3문화제 등 ○ (국내·외평화교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평화상 -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 (4·3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지 《4·3과 평화》 발간 및 온라인 홍보 등 	
	공원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평화공원 관리·운영 및 위수탁 업무 ○ 4·3어린이체험관 관리·운영 ○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 참배 안내 업무 ○ 시설 대관 및 자원봉사, 안내데스크 운영 ○ 재난·안전관리 업무 	
조사연구실	조사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추가진상조사 ○ 4·3희생자 유해 발굴 및 신원확인 ○ 4·3학술연구 지원사업 공모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제주4·3평화포럼 ○ 4·3 왜곡 대응 모니터링 사업 ○ 4·3아카이브 시스템 및 자료실 운영 ○ 기획 전시, 교류 전시 등 	

2025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

1.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 <진실을 밝히다: 제주4·3아카이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결정
(2025. 4. 11.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 14,673건의 문서 및 시청각 기록
 - 4·3 당시와 이후 진상규명운동 과정에 대한 기록물

2.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지원 및 부대행사 개최

- 일시/장소: 2025. 4. 3.(추념식) 전·후 / 4·3평화공원 등 도내 일원

3. 제77주년 4·3전야제 개최

- 일시/장소: 2025. 4. 2. / 제주아트센터
- 관람인원: 제주4·3유족 및 유관기관 임직원, 일반 시민 등 924명

4. 제13회 제주4·3평화문학상 시상

- 일시/장소: 2025. 4. 24. / 제주문학관
- 수상자: 장편소설 부문 <전쟁터로 간 사랑> 김미수(경북 칠곡),
시 부문<흰 문장> 김훤(전남 장흥), 논픽션 부문 <폭풍 속으로>
허호준(제주)

5. 제6회 4·3평화상 시상

- 일시/장소: 2025. 4. 29. /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 수상자: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Svetlana Alexievich)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 부대행사 북 콘서트 개최(5. 1. 제주문학관, 대담자 임철우 소설가)

6. 수학여행단 유치 확대 등 위한 전국 시·도 교육청과의 MOU 체결

- 시기/대상: 2025. 상반기/서울특별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 2025년 3개 교육청 MOU체결 목표 (2024년 인천·세종·울산교육청 체결)
- 협약내용: 제주4·3교육, 충남 항일 운동사 교육 등 활성화 등 교류사업 추진

7. 과거사 관련 국제교류전시 추진

- 제주4·3평화재단-타이베이228기념관 MOU 체결(2. 27.) * 2026년 하반기 전시 개최
- 제주4·3-오키나와 공동전시 추진 합의 * 2026년 상반기 전시 개최

8. 유족복지사업 추진

-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등 지원: 연인원 110,089명('25. 7월 기준)
- 4·3어버이상 발굴 시상: 85세이상 생존희생자 및 유족 50명

9. 4·3문화교육사업 추진 등

- 대학생 4·3평화대행진, 전국공무원 4·3교육, 국내외대학생 4·3평화캠프, 대학생 4·3동백서포터즈, 서울지역4·3문화제, 기관지<4·3과 평화> 발간,

10. 4·3행방불명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 기간/실적: 2018. 1. ~ 현재. / 수습유해 421구, 신원확인 147명
- 내용: 유해발굴 조사 및 유전자 검사, 유가족 채혈을 통한 신원 확인 등
- 협업기관: 서울대 법의학교실, 도내 병원 2개소

11. 제주4·3평화공원 내 건강한 수목 관리를 위한 MOU 체결

- 시기/대상: 2025. 6. /(사)한국나무의사협회제주분회, 제주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협약내용: 공원 내 수목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12. 영화 <한란> 제작 후원 및 자문

- 감독: 하명미 감독 / 주연: 김향기(아진 역), 김민채(해생 역)
- 개봉예정일: 2025년 하반기

13. 2025 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공동주최

- 일시/장소: 2025. 6. 25. / 민주화운동기념관 다목적홀
- 공동주최: 인권의학연구소,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숲
- 공동주관: 김근태재단, 제주4·3평화재단 등

2025년 하반기 주요현안 추진계획

1. 제3회 4·3영화제 개최

- 기간: 2025. 11월 중
- 내용: 신규 제작 영상물 공모·심사·시상, 본선 진출작 및 심사위원단 선정 작품 20편 내외 상영

2. 전국교원 4·3직무연수 추진

- 기간/대상: 2025. 8. ~ 11. / 서울·세종·인천·울산·충남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
- 내용: 4·3이론강의, 4·3평화공원 및 유적지 등 현장답사

3. 4·3장학사업 추진

- 기간: 2025. 9. ~ 10.
- 내용: 43희생자 및 유족 자녀 중 우수 학생 선발(대학생, 고등학생 20여명), 장학금 지원

4. 뮤지컬 <동백>

- 공연일시: (1회차) 2025. 9. 13.(토) 19:00~20:40 (100분)
(2회차) 2025. 9. 14.(일) 16:00~17:40 (100분)
- 공연장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 유료공연, 총 880석

5. 4·3전국화를 위한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 회의 개최

- 회의일시: 2025. 8. 21.
- 2026년 제주 개최 예정

6. 몽골국가회복관리위원회 방문 및 몽골 정치적 희생자 추도식 참석

- 방문기간: 2025. 9. 9. ~ 9. 12.
- 방문목적: 공동사업 추진 및 몽골국가회복관리위원회와의 지속적 교류

7. 4·3평화문학상 공모

- 기간: 2025. 5. 31. ~ 12. 19. * 2026. 4월 시상
- 내용: 제14회 4·3평화문학상 공모 홍보

8. 제주4·3기념품 제작 공모전

- 기간: 2025. 9. ~ 11.
- 내용: 제주4·3을 알릴 수 있는 기념품 전국 공모전 추진

9.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 개최

- 기간: 2025. 11. 13.(목) ~ 11. 14.(금)
- 주제: 제주4·3, 기억의 세계화, 역사의 대중화

10. Aegis Trust Rwanda MOU 체결 협의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협력NGO단체 ‘지구촌나눔운동’ 제안에 따라 Aegis Trust Rwanda 와의 MOU 체결 협의
- 협력내용: 제주4·3-르완다 학살 관련 상호 문화·역사 교류 프로그램 운영

□ 2025년 하반기 주요 사업 일정표

일 정	행 사 명	비 고
9. 5. ~ 6.	서울특별시교육청 4·3 직무연수	
9. 9.~ 9. 12.	몽골 정치적 희생자 추도식 참석	
9. 12. ~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4·3 직무연수	
9. 13. ~ 9. 14.	뮤지컬 <동백> 공연	
9. 26. ~ 27.	인천광역시교육청 4·3 직무연수	
10. 15. ~ 17.	전국공무원연수 5기	
10. 31. ~ 11. 1.	울산광역시교육청 4·3 직무연수	
11. 14. ~ 15.	충청남도교육청 4·3 직무연수	
`25. 11.	시민4·3아카데미	
11. 13. ~ 11. 14.	제15회 4·3평화포럼	
11. 20. ~ 11. 23.	제3회 4·3영화제	
12. 19.	제14회 제주4·3평화문학상 공모 마감	



No Gun Ri International Peace Foundation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소 개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2004년 3월 제정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노근리사건법’)에 근거하여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사건 현장 일대 4만여 평 부지에 국비로 조성된 노근리평화공원과 공원 내에 건립된 평화기념관, 교육관, 방문자 센터, 평화의 쉼터 등 각종 시설물의 관리운영은 물론 학예연구, 인권평화 교육, 국제교류협력, 노근리사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으로 전쟁의 참상과 교훈을 얻고 자유, 평화, 인권의 소중함을 교육하고 널리 알리는 기관이다.

설립이념

노근리사건은 전세계 많은 전쟁들 중에 민간인 피난민이 희생된 대표적이고, 상징적이며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하고 특별한 사건이다. 노근리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시설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노근리평화공원과 노근리평화기념관, 교육관 등 행정기관의 위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노근리정신인 ‘인권과 평화’ 애호사상을 증진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문화·학술사업을 추진하고,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 2025년 하반기 주요 사업 일정표

월별	시기	사업/행사명
9월	13일	○ 노근리평화기념관 특별기획전 개막식 『75주년 동안의 해와 별』
10월	16일	○ 제22회 노근리 인권·평화 백일장 시상식 (노근리공원)
	31일	○ 제5회 노근리 평화문학 포럼 (서울, 프레스센터) ○ 제18회 노근리 평화상 시상식 (서울, 프레스센터)
12월	4일	○ 미국 사회역사교사 연찬 총회 (NCSS) 참석
	18일 (잠정)	○ 『노근리는 살아있다』 증보판 발간

대표자회의 안건

안건

4대 민주항쟁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공동 대응

- 내용 : 대한민국 4대 민주항쟁을 새로운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위해 네트워크 차원의 공동 대응

※ 문재인 정부 새로운 헌법 전문(안)

현 헌법	개정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 건의사유

- 대한민국 4대 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명시하여 다시는 이 땅에 12·3계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명확히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요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에 공동 대응하는 것은 우리 네트워크를 비롯한 민주항쟁 기념단체들의 마땅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 부마는 군부독재에 저항한 최초의 시민항쟁으로, 5·18과 6·10으로 이어지는 군부독재 종식의 출발점이자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의의에 맞게 헌법전문에 반드시 수록되어야 합니다.

[2025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 네트워크 워크숍 대표자회의 안건 제안 : 부마재단]

1. 제안 개요

- 제안 목적: 민주·평화·인권 관련 7개 단체 대표와 대통령 간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민주주의·인권·과거사 치유·국민통합 가치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 공유 및 정책 연계 기반 마련
- 간담회 방식: 오찬 형식의 대면 간담회 (자유로운 의견 교환 중심)
- 참여 규모: 대통령 외 단체별 대표 1인씩 총 10명 내외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① 대통령 국정철학과의 일치 및 헌법정신 계승
 - 민주주의·인권·평화는 대통령의 주요 국정 기조이며, 이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도 일치
 - 대통령은 “K-민주주의의 시작은 동학과 5·18, 촛불을 거쳐 온 국민의 연대”라고 천명
 - 간담회는 국정철학의 실천과 헌법정신의 구현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
- ② 과거사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적 연대 실현
 - 각 단체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고통받은 시민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진실을 조명하는 역할
 - 대통령이 정부의 과거사를 이해하고 치유 의지를 국민에게 전달
 - 이념·세대·지역을 넘어서는 통합의 메시지로 작용하며, 국민통합 촉진
- ③ 정책 연계 및 정부부처 실행력 강화의 실질적 효과
 - 대통령이 직접 간담회를 주재하면 관계 부처의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 반영에 긍정적 영향
 - 민주시민교육 및 인권·평화교육의 확대와 제도화를 위한 현실적 동력 확보
 - 단체별 기념사업 활성화, 법률 개정 등 추진 동력 확보

3. 간담회 추진 방향

- 1단계: 단체별 협의
 - 간담회 취지 공유 및 사전 의견 수렴
 - 각 단체별 주요 현안(기념사업, 교육, 정책연계 등) 정리
- 2단계: 대통령실 접촉 및 간담회 추진
 - 우상호 정무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접촉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
- 3단계: 후속조치 연계
 -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실 브리핑
 - 민주시민교육 확대 및 기념사업 예산 연계 등 정책 반영

4. 참여 단체 개요

단체명	이사장	주요 목적
5·18기념재단	윤목현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정구도	전쟁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및 평화 가치 확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신순철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및 민주주의 발전 기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재오	전국 민주화운동 기록·연구 및 교육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박상도	1979년 시민 항쟁 정신 계승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행봉	1987년 6월항쟁 및 지역 민주운동 기념
제주4·3평화재단	김종민	국가폭력 희생자 추모 및 진실·화해 확산

5. 기대 효과

○ 민주주의 가치 존중 및 통합 메시지 확산

- 대통령의 국정철학(민주·인권·평화)의 실천 의지를 상징적으로 전달
- 과거사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정부의 책임성과 치유 의지 명확히 전달

○ 미래세대 민주 시민교육의 촉진 계기 마련

-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기반으로 한 기념사업 및 교육 확대

○ 국민통합을 위한 상징적 행보

- 이념·세대·지역을 초월한 화해와 연대의 메시지 발신
- 분열의 정치를 넘어서 국민통합을 기반으로 한 국정운영 동력 강화

[참고] 최근 VIP 주관 주요 면담 현황

날 짜	참 석 자	주요 내용
6월 4일	국회의장 및 여야 7당 대표	협치·통합 제안, 정쟁 지양
6월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장	민생경제 회복, 규제개선, 공정경쟁
6월 22일	여야 국회의원 (김병기·김용태 등)	G7 공유, 추경 논의, 총리 인준 관련 대화
6월 23일	민주당 원내대표단	개혁입법 추진, 당정 협력 방안 논의
7월 9일	종교계 지도자	사회통합, 인권과 민주 시민교육 논의
7월 10일	시민사회 원로 (백낙청·함세웅 등)	인문사회 회복, 민주주의의 길 제언
7월 11일	보수논객 (조갑제·정규재 등)	자유민주주의, 비판 수용과 통합 메시지 전달
7월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 대표단	진상 규명·재발 방지·책임자 처벌 약속
7월 24일	도올 김용옥 선생	역사인식 제고 및 국민통합

[2025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 네트워크 워크숍 대표자회의 안건 제안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신순철(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1. 사발통문 작성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주산길 4)



사발통문 작성터

고부농민봉기 직전인 1893년(계사년) 11월, 고부지역과 인근의 농민 지도자들이 전국적인 봉기를 계획하는 사발통문을 작성한 곳이다. 이 사발통문은 동학농민군이 처음으로 조직적 봉기를 계획하고 행동 목표를 밝힌 문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발통문은 사발을 얹어서 그린 원을 중심으로 참여자의 이름을 돌아가면서 적은 통문으로, 서명자의 동지적 결합을 강조하고 서명된 문서가 관에 들어갔을 경우 누가 주모자인지 알 수 없게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전봉준 등 20여 명의 동학농민군은 고부군 서부면 죽산리(현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 송두호의 집에서 사발통문을 작성하였다. 이 사발통문은 1968년 정읍시 고부면 송준섭의 집 마루 밑에 70여 년 동안 묻혀있던 족보 속에서 발견되었다. 1969년 4월 사발통문 서명자의 후손들이 주축이 되어 사발통문이 발견된 신중리 주산마을 앞에 동학혁명모의탑을 세웠다. 그리고 1994년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에서 마을회관 앞에 무명 동학농민군의 넋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해 무명농민군위령탑을 세웠다.

2. 백산성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백산면 부령로 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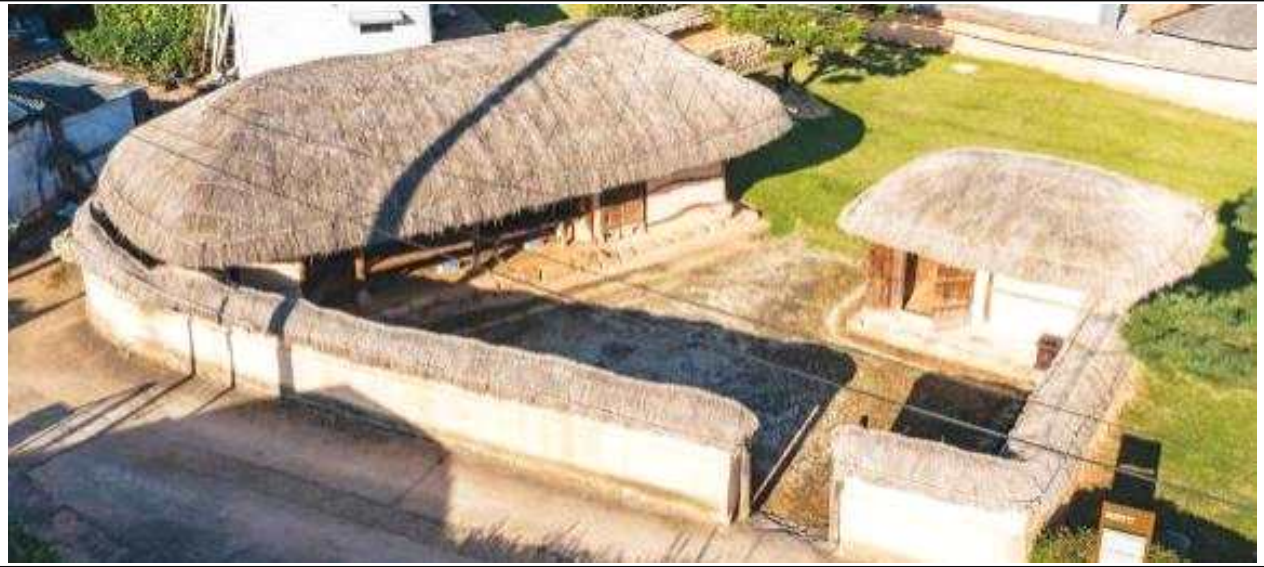
부안 백산성 동학혁명백산창의비

부안 백산성은 고부기포 이후 20여 일 동안 전봉준의 지휘부가 모여 관군에 대비하고, 무장기포 이후 3월 26일 전라도 각 지역의 접주들이 모여 군사적 지휘체계를 확립한 ‘백산대회’가 있던 곳이다. ‘백산대회’에는 호남창의대장소(湖南倡義大將所) 명의로 격문을 발표하고 전봉준을 대장, 손화중·김개남을 총관령, 김덕명, 오시영을 총참모, 최경선을 영솔장, 송희옥, 정백현 등을 비서로 뽑았다. 농민군은 1만여 명이 모여 후일 사람들은 당시를 회상하며 “앞으면 죽산(竹山), 서면 백산(白山)”이라고 하였다 한다.

백산성은 해발 47m에 불과하나 주변에 큰 산이 없어 정상에서 배들평야와 만경평야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략적 요충지로 관군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세곡 4천여 석이 저장된 해창(海倉)이 있어 군량미 수급에도 유리한 지역이었다.

1976년 4월 2일 전라북도 지정 기념물 제31호로 지정되었으며 1983년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98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다.

3. 전봉준 고택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평면 조소1길 16-1)



전봉준 고택

전봉준 장군이 동학농민혁명 전후시기에 거주하였던 집이다. 1894년 고부농민봉기 당시 안핵사 이용태에 의해 일부가 소실되었으나 완전히 불태워지지는 않았다. 이후 1974년 정읍군에서 보수하기 위해 해체하던 중 “무인(고종 15년, 1878년) 2월 26일”이라는 상량문이 발견되어, 1878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전봉준은 천안 전씨가 여러 대에 걸쳐 대대로 살아오던 고창현 죽림리 당촌에서 1855년 12월 3일 태어났다. 13살 무렵에는 고부군 남부면, 전주군 봉상면, 태인현 감산면, 태인현 동곡리 지금실 등지로 이사를 다녔다. 전봉준의 공초에는 “태인에 거주하다가 고부로 이주한 지 수년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해방 이후 촌로들의 증언을 기록한 것에 따르면 태인에서 고부 공동면 양교리로 이사했다가 다시 조소리로 옮겨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알려진다. 전봉준 고택은 1981년 11월 사적 제293호로 지정되었다.

4. 만석보쉼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말목장터로 823-12)



만석보쉼터

고부군수 조병갑은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하는 동진강 상류에 이미 보가 있었음에도 고부 농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보를 막았는데, 이것이 바로 만석보이다. 만석보를 조성한 이후 홍수가 나면 냇물이 범람하여 상류는 오히려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도 조병갑은 보세를 징수하였고 이에 농민들은 원성이 컸다. 이를 부당히 여긴 전봉준 등의 고부농민들은 1893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고부관아에 수세 감면을 진정하였으나 강제로 쫓겨나고 말았다.

결국 1894년 1월 10일 전봉준 등의 고부 농민들은 고부관아를 점령하고 만석보를 부수었다. 1898년 고부군수 안수길은 이 만석보를 완전히 철폐하였고 1973년 정읍군과 정읍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는 만석보유지비를 건립하였다. 만석보유지비 옆에는 1987년 세운 만석보정화기념비가 있으며 그 건너편에는 1999년 세운 양성우 시인의 만석보시비가 있다. 현재 만석보터는 전북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어 있다.